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7. 20.(월) 즉시 보도 가능		
해양수산국	해양산업과장	강승오	☎ 710-3250	
	크루즈해양레저팀장	강승훈	☎ 710-3226	

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23일 개막...도민 참여 확대

- 크루즈 선사·기항지·지속 가능성·해커톤 등 10여 개 프로그램 -
- 도내 기업 전시관 비즈니스 상담회, 크루즈 승선권 경품 등 다양한 부대 행사 -

- 아시아 크루즈 시장을 움직이는 선사·기항지·학계 관계자 700여 명이 이달 23일 제주에 모인다. 15개국이 참여하는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(2026 Asia Cruise Forum Jeju)이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(ICC JEJU)에서 열린다.
-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여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‘아시아 크루즈 4.0: 경계를 넘어 하나로(Asia Cruise 4.0: Beyond Boundaries, Connected as One)’ 다.
- 국가 간 장벽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 대신 상생·협력에 기반한 아시아 크루즈 통합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사흘간의 핵심 의제다.
- 올해 포럼에서 달라진 대목은 도민 참여 자리다. 전시 규모와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함께 늘렸고, 3시간짜리 릴레이 문화 공연과 크루즈 승선권 경품 행사도 새로 마련했다.
- 50여 개 기관·업체가 참여하는 전시관은 선사관, 산업관, 기항지관 세 곳으로 나뉜다. 크루즈 상품과 서비스, 로컬 콘텐츠 제품과 선용품, 국내외 크루즈 기항지를 각각 소개한다.
-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도내 기업·관광지 15개소를 포함해 약 50개 업체가 참여해 선사와 직접 마주 앉는다.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준비한 릴레이 공연은 국악부터 대중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든다.

○ 경품 행사는 세션 참석과 만족도 조사 등 스탬프 투어를 마친 참가자가 대상이다. 추첨으로 2명을 뽑아 제주 출발 준모항 크루즈 승선권을 1인당 2매씩 제공한다. 응모권은 23일과 24일 이틀간 현장 등록자에게 하루 200명씩, 모두 4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.

□ 개막식 기조연설은 올리비에로 모렐리(Oliviero Morelli) MSC 크루즈 한국·일본·동남아 사장이 맡는다.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미래 비전과 성장 방향을 제시한다.

○ 기조연설에 이어 크루즈선, 선사, 기항지, 지속 가능성, 학술 등 10여 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.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세션도 열린다. 관광·인공지능(AI)·데이터를 전공하는 도내외 대학생과 청년 30명이 크루즈 관광객의 이동 경로와 소비 특성을 분석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.

□ 제주도는 전시관과 비즈니스 상담회에 도내 기업 참여를 넓혀 포럼의 외연을 계속 확장할 방침이다.

□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“포럼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이 선사와 기항지의 실제 항로와 상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”며 “도내 기업이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자리를 앞으로 넓혀가겠다”고 말했다.